

안녕 기차역

독후활동지

세상을 떠난 미리를 그리워하며
매일 답이 오지 않을
문자를 보내던 시연에게
어느 날 한 통의 답장이 도착한다.

“당신의 선택 중에
되돌리고 싶은 게 있나요?
나는 불사조를 꿈꾸는
구미호 달호.
당신을 선택의 그날로
돌려보내 줄 수 있지요.”

각자의 사연을 품고
666기차에서 만난 세 사람은
자신들의 선택을
되돌릴 수 있을까?

이름 _____

학교 | 학년 _____

지도교사 _____



내가 구미호 증호, 달호와 거래한다면 나의 어떤 하루를 주고 싶은가, 써보세요.



내가 과거로 돌아가 후회하는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날로 돌아가고 싶나요?





내가 만약 소설 속 시연이라면, 동주가 누명을 썼을 때 솔직하게 “그건 내가 한 일이야!”라고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? 나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, 써보세요.



“시연아, 고맙다. 나에게도 진짜 친구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.
알바와 고용주가 아닌 진짜 친구.”
미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.

“미안해하지 마. 알았지? 그날 네가 그런 선택을 해주지 않았다면 너도 나도 둘 다 친구 한 명 없는 애들로 남았을 거 아니니. 나는 시연이 네 알바가 되려고 했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.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. 너도 후회하지 마. 절대로.”
미리가 다시 한번 말했다.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

위 장면을 읽고,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써보세요.





<안녕 기차역: 구미호 식당 5>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요?
이 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?

